

# 中小企業의 殘存理論에 관한 考察

黃 炳 峻

<目 次>	
I. 序 言	
II. 中小企業 消滅論과 殘存論	
III. 不完全競爭理論과 中小企業	
IV. 結 語	

## I. 序 言

中小企業問題는 「陳腐하고도 새로운」問題라고 한다. 확실히 그것은 資本主義經濟의 生成과 더불어 成立하여 오랜 歷史를 갖고 많은 論議를 거듭하여 온 問題이다. 그런데 한편 中小企業은 企業의 大規模化를 促進하는 一般의 傾向, 또한 資本의 集中·集積이라는 基本的 原理에도 불구하고 消滅되지 않고, 繼續 存立하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新業種이 增大하여 그 意義가 加重되면서 새로운 問題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韓國과 같은 後進國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資本主義가 高度로 成長한 先進國經濟에 있어서도 差異 없었다. 여기에서 中小企業의 存立 내지 殘存에 관한 理論이 提起되는 것이다.

本稿는 그와같은 殘存理論에 대하여 主要한 것을 概觀하는 동시에 특히 近代經濟學의 不完全競爭理論에 立脚한 「스타인들」의 「斷層說」에 焦點을 두고 보다 많은 檢討를 加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그의 理論을 背景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現實的인 中小企業問題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약간의 問題點을 示唆하고자 한다.

## II. 中小企業 消滅論과 殘存論

中小企業問題는 그 本質上 언제나 大企業과의 聯關性에 있어서 考察되는 것이 重要하다. 그런데 일찍이 資本主義經濟의 發展에 따르는 企業의 大規模化의 傾向에 비추어 中小企業은 淘汰, 消滅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홉슨」(J.A. Hobson)은 그의 著, 「産業制度論」속에서 그와같은 通俗的 見解가 상당히 有力하였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sup>(1)</sup> 이리하여 20世紀 初頭까지는 어느 쪽이나 하면 素朴한 中小企業消滅論이 支配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18世紀 後半부터 諸國에 앞서서 産業資本主義段階에 들어선 英國에 있어

(1) 同書, 第 183 面.

서는 大規模의 機械制工場工業의 發達과 더불어 中小企業(當時로서는 近代화된 中小工業도 있겠지만 주로 手工業・家内工業 等の 소위 小企業이라고 할 것이다) 이 衰退, 消滅하는 現象이 뚜렷 하였다. 이와같은 現象은 그후 獨逸의 産業革命過程에 있어서도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經濟的 現實을 背景으로 하여 經濟理論에 있어서도 中小企業 消滅論이 有力하였다는 것은 理解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그러한 消滅論에 관한 약간의 著述을 찾아 보면, 「맑스」(K. Marx)는 「資本論」・第1卷 속의 「資本主義의 蓄積의 一般의 法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競爭戰은 商品의 低廉化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商品의 低廉은 다른 事情이 不變이라면 勞動의 生産性에 依存하며, 다시 勞動의 生産性은 生産의 規模에 依存한다. 그러므로 보다 큰 資本은 보다 작은 資本에 이기게 된다. 또한 一事業을 그 標準의 條件下에서 營爲하기 위하여 必要한 個別資本의 最少量은 資本主義의 生産樣式의 發展과 더불어 커진다는 것이 想起된다. 그러므로 比較的 작은 資本은 大工業이 아직도 點在的이거나 혹은 不完全하게 支配하고 있는 生産部面에 集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競爭의 激烈程度는 敵對하는 諸資本의 數에 正比例하고, 그 크기에 反比例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것은 보통 多數의 보다 약한 資本家の 沒落으로써 끝나고 그들의 資本은 一部는 勝利者의 손에 옮겨지며 一部는 消滅한다』<sup>(2)</sup>는 것이다.

물론 그도 「近代的 家内勞動」, 즉 家内工業이 工場・「매뉴팩처」 등의 「外業部」로서 存續, 生成하고 있다는 것을指摘하고 있지만, 그러나 基本的인 資本蓄積過程에 관한 一般의 法則으로 볼때, 資本의 集積 및 集中現象이 貫徹되므로 大資本에 의한 小資本의 驅逐과 收奪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中小企業은 沒落, 消滅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와같은 大資本에 의한 小資本의 驅逐이라는 基本的 傾向은 한편 小資本의 殘存 및 새로운 誕生이라는 反對傾向과의 交錯中에서 貫徹된다는 점이 重要하다고 理解, 力說하는 學者도 있다.<sup>(3)</sup>

그것은 여하간에, 中小企業 消滅論에 관한 敘述은 그외의 여러 學者에 있어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슈몰러」(G. Schmoller)의 「19世紀 獨逸小工業史」<sup>(4)</sup>나 「쑤발트」(W. Sombart)의 「獨逸家内工業論」<sup>(5)</sup>이 그것이다. 또한 「마샬」(A. Marshall)도 그의 「經濟學原理」・初版(1890年)<sup>(6)</sup>에서는 아직 消滅論에 加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

(2) K. Marx, Das Kapital, Bd. I., 1867 (向坂逸郎譯, 岩波文庫版・(4), 118面).

(3) 예컨대, 北原 勇, 「資本蓄積運動に於ける 中小企業」(「講座 中小企業」・2, 83面) 參照.

(4) G. Schmoller,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Kleingewerbe im 19 Jahrhundert, 1870.

(5) W. Sombart, Die Hausindustrie in Deutschland, Archiv für soziale Gesetzgebung und Statistik, Bd. 4., 1891, S. 144, etc.

(6) A.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1890, 8. ed., 1920.

살』은 同書・第2版(1891年)에서 中小企業 殘存에 관한 問題를 提起하고 그후는 오히려 殘存論의 代表者의 한 사람으로서 손꼽히고 있다. 그의 中小企業의 殘存理論에 관하여서는 아래에서 다시 상세히 論及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留意하여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中小企業의 消滅論이라고 하지만 資本主義經濟의 一般의인 發展이나, 그나라 國民經濟規模의 成長, 增大에 따라서 中小企業이 大企業으로 擴大, 轉換되는 것을 全的으로 否定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직 그처럼 大企業으로 上昇하는 中小企業은 극히 限定된 一部分이고 大部分의 경우는 沒落, 淘汰되어 드디어 消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와같은 中小企業의 一般의인 沒落現象과 관련하여 國民經濟의 見地에서 어떻게 이를 意識하며 또 그에 對處하였느냐 하는 問題도 重要하다고 할 것이다. 英國에 있어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18世紀 後半부터의 產業革命의 過程을 통하여 中小企業이 廣範하게 淘汰되고, 그것이 실제로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減縮되었지만, 이를 合理的인 結果로 보고 當然視하는 傾向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말하자면 「흡손」과 같이 中小企業을 適正規模(the maximum unit of business efficiency)의 것과 適正規模以下の 것으로 區分하고 前者를 眞正한 殘存(genuine survival)으로 보는 反面에 後者는 非合理的存在로 看做하는 것이다. 가령 그 나라에서 歷史적으로 注目되는 苦汗制度(sweating system), 말하자면 一種의 家內工業에 대하여서는 이를 劣惡勞動條件의 問題로서 意識하고<sup>(7)</sup> 「最低賃金法」(1909年)을 비롯한 制度的, 政策的인 解決에 注力할뿐, 國民經濟의 觀點에서 中小企業問題로서 認識, 發展되지 않았다.

여기에 反하여 英國과 時代的, 經濟構造的 差異는 있지만, 美國에서는 19世紀末 以後의 經濟力의 集中에 따르는 獨占의 弊害에 비추어 특히 1929年의 大恐慌을 契機로 하여 中小企業의 保護 및 育成을 強調하는 見解가 有力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獨占과는 反對로 個人的創意, 自由競爭制度에 根據한 中小企業이야말로 진실로 經濟發展을 促求하며 經濟의 合理性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와같은 見解는 오늘날 까지 美國政府의 公式의 發表<sup>(8)</sup>나, 혹은 中小企業學者<sup>(9)</sup>間에서 共通的으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여서 過言이 아니다. 한편 19世紀의 獨逸에 있어서도 沒落, 衰退하는 中小企業을 救濟하여야 한

(7) 高橋克嘉, 「19世紀末 イギリス賃勞動の 構造變動への 一接近」(「一橋論叢」, 第43卷・第2號, 參照.)

(8) 例컨대, 1942년에 組織된 「經濟發展委員會」(CED)의 「中小企業特殊問題小委員會」(The Subcommittee on the Special Problems of Small Business)는 1947년에 Meeting the Special Problems of Small Business 라는 題目的 建議書를 發表하였다.

또한,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What it is, What it does, Dec., 1954 를 參照.

(9) E.P. Schmidt, Small Business, Its Place and Problems, *Postwar Readjustment Bulletin*, No. 7, 1943.

R. Weissman, Small Business and Venture Capital, New York, 1948.

A.D.H. Kaplan, Small Business, Its Place and Problems, New York, 1948.

다는 保護論이 全般的으로 強力하게 支配하였다. 그런데 그와같은 主張은 이른바 倫理經濟學의 立場에서 이루어지고 社會政策的인 色彩가 濃厚하다는 점이 留意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獨逸은 普佛戰爭(1870~71年)以後의 恐慌과 더불어 中小商工業의 困窮, 勞動者의 失業, 手工業者의 沒落相이 深刻하게 나타났었다. 여기에서 「슈몰러」를 비롯하여 當時 獨逸의 社會政策學會를 中心으로 하는 많은 歷史學派의 經濟學者들은 社會政策的인 見地에서 그 救濟를 부르짖는 한편 中小企業問題에 대하여 새로운 意識을 갖고 重視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中小企業問題는 英國보다 오히려 19世紀 後半부터 20世紀 初頭に 걸친 獨逸에서 그 理論的展開의 始發點을 求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中小企業消滅論의 主張과는 달리 20世紀後半에 이른 오늘날까지 中小企業은 消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이 生成되는 業種이나 產業部門이 적지 않으며, 또 그 國民經濟의 意義과 重要性은 여러 角度에서 倍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中小企業은 如前히 殘存하고 있다는 것이다. 獨逸은 勿論이고 英國에서도 19世紀後半에서 20世紀에 들어선 후에 手工業·家內工業 등의 소위 小企業이 뿌리 깊게 殘存하고 있을 뿐더러, 資本主義的經營을 하는 近代의 中小規模工場이 發生, 存立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手工業이나 家內工業만이 아니라 近代의 中小規模工場을 모두 包含하여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現代的意味에 있어서의 中小企業의 概念이 形成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中小企業殘存論이야말로 우리가 充分이 考察, 研究하여야 할 理論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베른슈타인」(E. Berunstein)은 中小企業消滅論을 批判하고, 그 殘存論을 主張한 사람이다. 그는 1882年과 1895年의 獨逸에 있어서의 統計를 比較함으로써 中小企業이 衰滅되기는 커녕 도리어 增大되고 있는 事實을 指摘하고, 나가서 것처럼 中小企業이 存續하는 條件으로서 세가지를 들고 있다. 즉, (a), 業種에 따라서는 大企業에도 中企業에도 適合한 것이 있다는 것, (b), 生産物을 消費者에게 容易하게 入手시키는데에는 中小企業이 더욱 有利하다는 것, (c), 大量生産에 의한 原料의 低廉化가 中小企業을 손쉽게 發生시킨다는 것이다.<sup>(10)</sup> 이와같은 「베른슈타인」의 見解는 「카우츠키」(K. Kautsky)에 의하여 다시 批判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消滅되는 中小企業은 『生産手段을 勞動者가 私有하는 것을 基礎로 하는 것』이고 새로이 發生하는 中小企業은 資本의 集中過程에서 失職한 勞動者가 生産手段을 資本家로부터 先貸를 받아 設立한 것이므로 전혀 그 性格이 다른 것인데 이 兩者를 합친 統計數字的 比較만으로는 問題解明에 있어 결코 充分치 않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中小企業이 資本의 收奪對象이 되며 大企業의 勞動力豫備軍이 된다

(10) E. Berunstein, Die Voraussetzungen des Sozialismus und die Aufgaben der sozial Democratie, Stuttgart, 1899, SS. 94—108.

는點에서 그 殘存理由를 說明하고 있다.<sup>(11)</sup>

그런데 그 후의 理論發展에 있어서 注目되는 것은 中小企業과 對立하는 것은 大企業이 아니라 獨占資本이며, 또 獨占資本主義段階에서는 獨占資本의 欲求에 의하여 中小企業이 溫存, 從屬된다는 것이다. 그와같은 見解는 「레닌」(N. Lenin)만이 아니라, 「돕브」(M. Dobb), 「플로렌스」(P.S. Florence), 「캐플란」(A.D.H. Kaplan) 등의 여러 學者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12)</sup>

가령 中小企業이 大企業, 특히 獨占企業과의 請負關係 혹은 系列化에 의하여 從屬의 내지는 相互補完의 關係를 맺고 存立하고 있다는 것을 重視하는 것이다.<sup>(13)</sup> 여기에 관하여서는 각별히 日本에서 많은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見解는 대개 中小企業에 대한 獨占의 大企業의 收奪을 強調함으로써 中小企業은 抑壓을 당한채 大規模化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中小企業의 殘存論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美國의 「캐플란」에 의하면 技術의 進歩가 不斷히 이루어지고 있는 產業에 있어서 는 獨占 내지 寡占이 價格의 主導權을 繼續하여 確實히 掌握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리고 競爭企業과 마찬가지로 어느 程度 市場價格에 適應하든지, 또는 獨占價格을 形成할 때까지 상당히 長期間에 걸쳐서 價格競爭을 하여야 할 必要가 있으므로 寡占의 大企業은 多數의 中小企業에 대하여 雨傘의 役割을 하면서 그들을 溫存, 保護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sup>(14)</sup> 이외에도 中小企業의 殘存에 관하여 여러가지 角度에서 接近한 見解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近代經濟學의 觀點에서 볼때, 中小企業의 殘存에 관한 理論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 重要한 所論을 찾아볼 수 있다. 要言하면 그 하나는 企業은 처음에 小規模企業으로부터 出發하여 점차 大企業으로 成長, 發展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企業의 上昇運動이 繼續되면서 中小企業이 殘存한다는 것이다. 完全競爭理論에 立脚한 「마샬」(A. Marshall)의 이른바 「代表的 企業」에 관한 理論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見解는 傳統的인 完全競爭理論의 立場에서 論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그와 反對로 大企業은 처음부터 大企業으로서 成立되고 中小企業은 中小企業대로 生成, 衰滅하므로 실제로 中小企業은 거의 大規模化될 수 없다는 見解이다. 「스타인들」(J. Steindl)의 「中小企業成長斷層說」이 그 代表的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見解는 「첼벌린」(E. Chamberlin), 「로빈슨」(J.

(11) K. Kautsky, *Das Erfurter Programm*, Stuttg., 1892, 17. Aufl., 1922. 「エルフルト綱領解説」(改造文庫版) 10—20面과 27—57面 參照.

(12) M. Dobb,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1951, p. 322—6.

P.S. Florence, *The Logic of British and American Industry*, 1953 p. 66.

(13) 藏園 進, 「下請制度」(「講座 中小企業」·2, 第195面 以下)

(14) A.D.H. Kaplan, *The Influence of Size of Firms on the Functioning of the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50, p. 78—82.

Robinson) 女史 등의 소위 不完全競爭理論을 背景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마샬」에 있어서 모든 企業이 처음에 小規模로 成立되었다가 大企業으로 成長한다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沒落, 消滅하는 企業도 많이 있겠지만, 基本的으로 역시 中小企業의 大企業으로의 上昇運動이 支配的이라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스타인들」에 있어서도 大企業으로 成長하는 中小企業의 存在를 전혀 否定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大企業으로의 成長을 말하자면 例外的인 現象으로 본다는 점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오히려 最近에 와서 「펜로우즈」(T. Penrose)는 國民經濟의 成長率이 높고 그것이 大企業의 成長率을 넘었을 때는 經濟成長에 있어서 大企業의 活動이 미치지 못하는 間隙(interstice)이 커지므로 中小企業이 大企業으로 成長, 發展할 수 있는 機會가 增大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注目되는 見解라고 하겠다.<sup>(15)</sup>

앞에서 말한 「마샬」과 「스타인들」의 見解는 여하간 中小企業의 存立에 관하여 서로 對立하고 있는 셈인데, 이제 그것에 대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 Ⅲ. 不完全競爭理論과 中小企業

完全競爭을 前提로 하는 「마샬」(A. Marshall)의 代表的企業의 理論과 不完全競爭理論에 立脚한 「스타인들」(J. Steindl)의 中小企業의 成長斷層說에 있어서 실제로 「스타인들」은 「마샬」의 見解를 直接 論議對象으로 하여 이를 批判함으로써 그의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샬」·「스타인들」의 順序로 두 사람의 所論을 考察하는 가운데서 오늘날 가장 注目되는 中小企業의 殘存理論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마샬」의 代表的企業의 理論

「마샬」은 그의 有名한 「經濟學原理」<sup>(16)</sup>에서 各企業의 規模에 관한 經濟(economy)를 重視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같은 經濟를 論述함에 있어 各個別企業의 自體規模에 立脚한 內部經濟(internal economy)와 그 企業이 속하는 產業部門, 國民經濟, 世界經濟 等の 말하자면 企業外的 規模에 依存하는 外部經濟(external economy)로 區分한다.<sup>(17)</sup> 그런데 內部經濟는 生産技術·原料購入·製品販賣·資金調達의 諸條件, 혹은 經營管理 等に 의하여 規制된다. 가령 近代의 生産에 있어서의 技術은 大量生産方式에 立脚하고 있으므로 이 生産技術의 條件은 企業의 大規模化의 基本要因이 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原料購入·製品販賣·資金調達 등의 諸條件도 企業의 大規模化를 規定하는 條件이 된다. 그와는 反對로 人事管理 및 經營管理의 條件은 一定限度 以上の 企業의 大規模化를 不利하게 하

(15) T. Penros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 1959, p. 233—228.

(16) A.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1st ed., 1890, 8th ed., 1920.

(17) ibid., 1956, p. 221.

는 條件으로서 作用할 것이다. 그러므로 同一한 產業內에 있어서도 企業에는 優劣의 差異가 있게 된다. 한편 企業은 그 外部的 條件, 例컨대 市場의 廣狹, 國民經濟의 構造, 世界經濟의 潮流 等에 關聯하여 그 規模의 擴大가 促進, 또는 沮止될 수 있다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sup>(18)</sup> 이처럼 企業은 그 內部的, 外部的, 諸條件에 의하여 그 規模가 決定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添言하면 資本主義經濟의 一般的傾向으로서는 企業은 점차로 그 規模를 擴大하여 大規模化하는 것이며, 大企業이 支配的이라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마샬」은 各種產業에 있어서의 規模增大에 따르는 大規模生産의 節約을 原則적으로 認定하고 있다.<sup>(19)</sup> 그러나 問題는 그 節約의 限界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大規模生産의 節約을 前提하면 完全競爭에 있어서 價格은 所與이므로 一單位當의 費用이 規模增大와 더불어 低下하고, 따라서 어느 特定企業은 크게 成長하여 드디어 生産의 集中을 實現하고 獨占的 地位를 占有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完全競爭과 矛盾되는 結果가 된다는 問題點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하여 「마샬」은 要約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解答을 하고 있다.<sup>(20)</sup> 즉,

(1) 企業者 또는 그 相續者의 才能과 體力은 一定한 時期後에는 衰退된다고 하겠으므로 企業의 成長은 無限이 繼續될 수 없다. 이와같은 企業者의 才能衰退라는 것은 「마샬」이 假定한 社會的 法則의 하나이다.

(2) 많은 產業에 있어서 大規模生産의 節約은 企業의 市場擴大의 困難으로 因하여 沮止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重視하여야 할 것은 둘째번의 解答이라고 할 것이다. 즉 個個의 企業이 販賣를 增加하고 節約의 利得을 얻기 위해서는 價格引下 없이는 不可能하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마샬」이 想定하는 바 完全競爭이 아니라, 需要曲線의 右下를 意味하는 소위 不完全競爭의 理論에 立脚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샬」은 『特殊한 趣味에 適應하고 있는 製造工業은 原則적으로 小規模이다……. 各 企業이 넓은 좁든 自己 自身の 特殊한 市場을 指向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產業에서는 企業이 生産을 서둘러 增加하면 그 增加에 따르는 節約에 比例하지 않는 需要價格의 低落

(18) A. Marshall, Industry and Trade, A Study of Industrial Technique and Business Organization, and of their Influences on the Condition of Various Classes and Nations, 1919. 도 아울러 參照.

(19) 一般的으로 工業에서는 大規模節約이 있고 天然產業(extractive industries)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表面積이 넓은 鑛床에서 低品位의 鑛石을 採取하는 鑛業이나 石炭鑛業등에서는 大規模節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一括으로 말 할 수는 없다.

(20) A.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 1938, pp. 285—6, 315—6, 457—8.

을 일으키기 쉽다. 그리고 그 生産이 넓은 市場에 있어서 相對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할 지라도 그러하다.』<sup>(21)</sup>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完全競爭의 定義에 비추어 個個企業은 市場價格을 左右할 수 없으므로 結局 不完全競爭에 관한 說明을 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마샬」은 그의 完全競爭의 想定과는 矛盾되는 敘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걸음 나가서 企業은 처음에 小規模企業으로 부터 出發하여 漸次 大規模企業으로 成長, 發展한다는 根據를 부여한 「마샬」의 代表的 企業(representative firm)의 理論을 보기로 하자. 여기에서 그는 完全競爭理論을 前提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샬」이 代表的 企業의 概念을 森林에 比喻하여 說明한 것은 너무나 有名하다. 즉 個個의 樹木은 혹은 成長하고, 혹은 老木으로 化하여 쓰러지지만 森林全體로서는 언제나 鬱蒼하게 繁成하여 간다. 그런데 어떤 產業에 있어서의 企業活動樣態도 그와 같다는 것이다. 어떤 企業은 衰亡하고 어떤 企業은 새로이 成長하여 老衰한 企業에 代替된다. 이처럼 많은 新舊의 企業이 不斷히 交替되고 있는 產業속에서 어떤 意味에서 正常的인(normal) 特定規模를 가진 企業을 想定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代表的企業의 概念인 것이다. 그는 이것을 重視한다. 이 代表的企業은 老朽하여 死亡하는 企業도 아니며 年少한 成長中의 企業도 아니다. 또 巨大한 規模의 企業도 아니며 언제나 利益이 있는 有利한 企業도 아닌 것이다. 그것은 그 產業中에서 一定한 크기를 가지며, 여러 特性을 지닌 企業群을 平均하여 正常的인 節約(normal economies)을 얻는 企業인 것이다. 正常的인 節約을 얻는다는 것은 그 企業의 規模에 이르기까지는 大規模生産의 節約이 販路擴大의 費用보다 有利하고, 그 規模를 넘으면 反對가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또한 代表的 企業의 規模는 固定的이 아니고, 產業의 規模가 擴大되면 거기에 따라서 增大한다. 그것은 새로운 市場이 特別한 販賣努力 없이도 企業에 添加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代表的 企業은 大規模生産의 節約과 市場擴大와의 사이의 均衡 내지 調和로서 考察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森林에 比喻한 이 理論은 代表的企業을 平均의인 크기를 가진 典型的인 企業으로서 描寫하였다. 그러므로 이 理論은 代表的企業과 더불어 그보다도 큰 規模의 大企業과, 그보다도 작은 規模의 中小企業이 同時적으로 存在하고 있는 것을 認定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萬若에 그 產業에서 代表的企業의 規模가 오히려 크다면 그와같은 規模를 經營하여 節約을 利用할 수 있는 企業者의 供給이 制限되어 正常的이 아닌 特別利益(abnormal profits)을 永久히 收得할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問題를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이미 代表的企業에 到達하고 있는 企業으로서 새로이 成長하여 뒤따라 오는 企業이 企業者의 供給不足으로 制約되는 까닭이다. 이點에 대하여 「마샬」은 다음과 같은 對

(21) *ibid.*, p. 457-8.



답을 하고 있다. 즉, 企業者(經營能力과 資本을 包含)의 供給은 長期的으로 보면 彈力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原則的으로 企業能力的 供給은 그 需要에 適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英國과 같은 나라에서는 大規模로 經營될 事業이 있는 곳에는 必要한 能力도, 資本도 迅速確實하게 供給된다고 한다. 그것은 水平的으로 남아 돌아가는 事業에서 必要로 하는 事業에, 또한 垂直的으로 有能한 者는 下級에서 上級の 地位에 손쉽게 옮겨지므로 企業은 상당히 一定한 供給價格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sup>(22)</sup>

한편 그는 企業者供給의 彈力性은 個人的能力이라는 觀點에서도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처음에 事業資本이 必要하다고는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勞動者에서 小企業者로, 小企業者에서 大企業者로의 發展은 現實的으로 可能하며, 企業能力이 있는 者는 언제나 必要한 資本을 찾아내는 反面에 無能力者는 資本을 喪失하게 된다. 또한 借入額에 있어서도 原則的으로 아무런 制限이 없다. 自己가 所要하는 額數는 容易하게 借入할 수 있는 有能한 企業者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能力供給의 彈力性은 明白하다고 強調한다.<sup>(23)</sup>

이리하여 「마샬」에 있어서는 全體的으로 廣範한 소위, 上向運動(upwards movement)이 있고, 特別利益을 繼續하여 收得할 수 있는 代表的企業規模는 存在할 餘地가 없다는 것이다. 실사 一時的으로 있다 하여도 企業者의 相互競爭에 의하여 얼마 안가서 利益率은 正常的인 水準으로 下落하게 된다. 그러므로 확실히 代表的企業에 관한 考論은 完全競爭을 前提로 하는 理論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또하나 留意할 것은 「마샬」의 理論에 있어서는 大企業이 中小企業과 併存하며, 혹은 代表的 企業과 成長中의 企業이 함께 存在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그것은 왜 可能하나 하는 것이다. 그 理由는 한마디로 말하여 中小企業이 特殊한 趣味에 適應하는 등, 그들 固有의 顧客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大企業이 어떠한 代價를 支拂하고 犧牲을 覺悟하지 않으면 빼앗을 수 없는 固有의 市場인 것이다. 또한 中小企業이 大企業으로 成長하는 理由로는 젊은 優秀한 企業者의 能力이 技術의 不利益에 不拘하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以上 대체로 「마샬」의 代表的 企業의 理論을 要約하였다. 확실히 「마샬」은 完全競爭의 立場에 서면서도 不完全競爭의 理論을 含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스탄인들」의 말을 빌리면, 『……그것이 偶然한 思考에 不過하였는지, 혹은 그의 體系의 本質的인 部分으로서 適合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할말이 없지만, 「마샬」에 있어서 市場不完全의 重要性은 그 얼마나 明白한 것인가. 그 어느 경우고 간에 代表的企業은 曖昧한 概念 밖

(22) op. cit., p. 312—3.

(23) op. cit., p. 308—11.

에 안된다. 그리고 「마샬」이 그러한 思考(市場不完全에 관한)를 가지고 있었다는 대체로 의 傾向은 틀림 없는 것이다.』<sup>(24)</sup> 라고 말하고 있다.

## (2) 「스타인들」의 中小企業 成長斷層說

앞에서 본 「마샬」의 理論에 대하여 「스타인들」은 「마샬」이 企業者의 個人的 能力이라는 것을 過大評價하고 있으며, 또 그의 廣範한 上向運動에 관한 見解는 非現實的이라는 점들을 中心으로 이를 批判하면서 그 自身の 所論을 披瀝하고 있다.<sup>(25)</sup>

우선 첫째로 오늘날 企業規模의 差異는 실제로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例컨대 美國의 會社를 보면 資產額 5 萬弗 以下の 「그룹」(이는 全會社數의 約 2 分の 1 을 차지한다)으로부터 5,000 萬弗 以上の 資產額을 갖는 「그룹」(이는 全會社資產額의 2 分の 1 에 달한다. 소위 「600 會社」라고 하는 것이다)에 이르기 까지 그 規模의 格差는 대단히 크다. 이들 600 會社의 平均資產額은 1933 年에 있어서 24,000 萬弗인데, 資產이 아니라 自己資本으로 比較하면 그 格差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個人企業은 말할 것도 없고 法人化된 小會社가 大會社로 成長하자면 5, 6 千倍의 資產擴張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長久한 時日을 要할 뿐만 아니라, 中小企業의 死亡率이 높기 때문에 거의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므로 「森林의 比喻」는 適切하지 않다. 大部分의 경우 樹木은 成長하지 않는 것이다. 成長한다 하여도 不知何歲月이다. 따라서 극히 僅少한 中小企業者만이 大會社에 가까운 規模로 企業을 擴充할 수 있을 뿐이고, 大會社의 衰亡은 결코 그렇게 빠를 수 없는 것이다. 結局 企業者의 能力은 「마샬」이 말한것 처럼 큰 役割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中小企業의 衰亡은 中小企業의 範圍內에서 이루어진다. 大會社의 衰亡은 中小企業者의 成長이나 大會社者의 精力이 早期消耗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企業危險이라는 偶發的 損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로 「마샬」은 借入에 制限이 없는 것을 假定하였지만 事實은 一般的으로 嚴格한 制限이 있다. 특히 中小企業者에 있어서 그러하다. 企業負債의 比率을 制限토록 努力하는 貸金主가 있는 것이다. 美國의 實例에 의하면 銀行의 貸出拒絶理由中에서 「不適當한 純價値」 즉, 自己資本에 比하여 借入資本이 많다는 것이 拒絶理由의 40%에 달하고 있다.<sup>(26)</sup> 또 한 美國商務省의 調査에 의하면 金融難을 呼訴하는 企業의 百分比는 自己資本에 대한 負債比率이 높을수록 增大한다는 것이 報告되고 있다.<sup>(27)</sup> 이는 一般的으로 中小企業은 負債

(24) J. Steindl, Small and Big Business, 1945, p. 4.

(25) J. Steindl, Small and Big Business.—Economic Problems of the Size of Firms, 1949, p. 4—10.

(26) Hardy-Viner Report, quoted from Temporary National Economic Committee (TNEC), Monograph 17, p. 224. (Steindl, *ibid.*, p. 5., footnote 2.)

(27) Survey of Reports of Credit Difficulties, Dept. of Commerce, 1935. See TNEC Monograph 17, p. 224 seq. (Steindl, *ibid.*, p. 5, footnote 3.)

률이 높다는 事實을 前提할 때, 金融難이 企業의 規模增大와 더불어 減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前記한 貸出拒絕理由와 아울러 생각할 때 結局 中小企業의 借入에 대한 障害가 얼마나 큰가를 立證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要컨대 長期金融市場이 中小企業에 대하여 閉鎖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現實으로는 費用, 其他 關係로 거의 貸出이 不可能하며, 그 結果 中小企業者는 주로 短期金融에 依存하게 되므로 企業의 流動性을 低下시켜 더욱 더 信用을 받기 어렵게 만든다.<sup>(28)</sup> 金融機關의 立場은 別途로 치더라도 企業者 自身이 負債比率이 增大하는데 따라서 企業의 危險도 커지므로 借入을 어느 限度로 制限하여야 한다는 것은 今日的 常識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近代經濟理論에 있어서 一般的으로 認定되고 있는 危險增大의 原理(the principle of increasing risk)인 것이다.<sup>(29)</sup>

셋째로 中小企業이 大企業보다 損失이 頻繁하고 決定的이므로 事實上 死亡率이 높다는 것을 表示하는 根據가 있다. 지금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美國의 製造工業에서는 전혀 利益이 없는 會社의 比率은 企業의 規模와 더불어 減少하는 것이다. 이 表에서 最低의 「그룹」은 相對的으로 好景氣의 時代에 있어서도 그 大部分이 繼續 純所得이 없다. 다음의 表2는 그와같은 缺損會社(deficit corporation)의 平均損失率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表示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平均損失率은 株式資本과 剩餘金에 對比하여 40% 내지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처럼 中小企業의 損失의 頻繁도와 重大性에 비추어 中小企業의 死亡率(mortality)이 높다는 것은 틀림없다. 실제로 小賣業과 같이 大企業보다 中小企業이 確實히 有利한 業種에

<表 1> 製造工業規模別에 있어서의 全會社總資產對「缺損會社」總資產의 百分比(美國)

資產規模別(下限을 表示)	1931年	1932年	1933年	1934年	1935年	1936年
0(千弗)	77(%)	85(%)	74(%)	66(%)	63(%)	56(%)
50	65	81	64	54	50	40
100	64	79	59	51	44	33
250	65	76	55	47	40	28
500	64	75	52	45	38	24
1,000	65	76	50	42	33	19
5,000	64	73	53	41	32	17
10,000	59	73	50	41	31	13
50,000	60	69	45	47	32	8
100,000	—	—	—	—	—	13

資料 : Crum, Corporate Size and Earning Power. (Steindl, *ibid.*, p. 6. 參照).

(28) Steindl, *ibid.*, op. cit., 19—20.

(29) M. Kalecki, *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Fluctuations.* (Steindl, *ibid.*, p. 6, footnote 1.)

〈表 2〉 製造工業規模別에 있어서의 缺損會社의 百分比損失  
(損失과 株式資本+剩餘金의 百分比) (美國)

資産規模別(下限을 表示)	1931年	1932年	1933年	1934年	1935年	1936年
0(千弗)	41(%)	38(%)	31(%)	30(%)	30(%)	30(%)
50	23	20	15	14	13	14
100	18	16	12	11	11	11
250	10	13	8	9	8	9
500	11	11	8	8	8	9
1,000	10	9	7	6	5	7
5,000	8	9	5	5	5	5
10,000	7	8	6	4	3	5
50,000	2	3	4	1	0	5
100,000	—	—	—	—	—	1

資料 : Crum, Corporate Size and Earning Power. (Steindl, *ibid.*, p.6. 參照)

있어서도 높은 死亡率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역시 美國의 경우를 보면 小賣業은 그 30%가 1年 以內에 營業을 中止하고, 다시 다음의 1年이 되기 前에 14%가 消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30)</sup> 이와같은 現象은 手藝 및 小規模 「서비스」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sup>(31)</sup> 또한 「미네소타」에 있어서의 製造工業에 관한 死亡研究도 企業者의 資本이 적을수록 그 死亡率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듯 하다.<sup>(32)</sup>

한편 美國 商務省에서도 企業規模別의 死亡率을 調査한 資料가 있다.<sup>(33)</sup> 즉, 1940年 6月부터 1942年 7月 사이에 中止事業體數를 產業別 「그룹」의 雇傭人員을 基準으로 하여 算出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1939年에 實存한 事業體數를 100으로 하여 表示하면 表 3과 같다. 이 表에서 알 수 있는것 처럼 規模의 增大와 더불어 死亡率은 激減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중에서 建設業과 小賣業은 異例의인 變化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개 1942年의 大自動車配給業者의 閉鎖와 같은 特殊事情에 緣由할 것이다.<sup>(34)</sup>

그런데 이 表 3에 있어서의 中止事業은 실제로 清算과 讓渡를 包含하고 있다. 讓渡는 事業 그 自體는 存續하는 것이므로 이를 除外하고<sup>(35)</sup> 清算의 경우만을 보면 建設業이나 小賣業의 例外的인 現象은 거의 拂拭되고 마는 것이다. 表 4가 이를 나타내고 있다. 要言하면 死亡率은 企業規模의 增大와 더불어 減少한다는 것이다.

(30) TNEC Monograph 17, p. 7. (Steindl, *ibid.*, p. 7, footnote 1.)

(31) *Ibid.*, p. 7. seq. (Steindl, *ibid.*, p. 7, footnote 2.)

(32) E.A. Heilman, Mortality of Business Firms in Minneapolis, etc.,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33, Sec. TNEC Monograph 17, p. 48. (Steindl, *ibid.*, p. 7, footnote 3.)

(33) Survey of Current Business, November 1943. (Steindl, *ibid.*, p. 7, footnote 4.)

(34) *Ibid.*, p. 17. (Steindl, *ibid.*, p. 7, footnote 5.)

(35) 事實上 事業의 賣却은 失敗의 表示라고 하겠으나 死亡은 아닐 것이다. (Steindl, *ibid.*, p. 7, footnote 6. 參照).

<表 3> 事業規模別에 의한 1940~42년의 中止事業, 1939년의 操業 事業體數=100 (美國)

雇 傭 者	運・輸金融을 除 外 全 「그 룹」	鑛 業	建 設 業	製 造 工 業	都 賣 業	서 비 스 業	小 賣 業
1~3(人)	22	72	29	29	17	44	11
4~7	14	28	16	14	10	40	7
8~19	14	26	21	16	8	27	9
20~49	12	18	9	11	8	29	10
50~	6	6	13	6	4	10	4

資料 : G.B. Wimsatt, Business Discontinuance, 1940~42. Survey of Current Business, November, 1943. (Steindl, ibid., p. 8. 參照)

<表 4> 總中止事業에 있어서의 情算의 比率, 1940~42년의 百分比 (美國)

雇 傭 者	運 輸・金 融 을 除 外 全 「그 룹」	鑛 業	建 設 業	製 造 工 業	運 輸 業	都 賣 業	小 賣 業	서 비 스 業
1~7(人)	45	64	81	47	52	56	41	34
8~19	43	60	73	47	41	40	37	31
20~49	42	51	72	42	35	40	37	31
50~	39	50	78	38	22	29	20	28

資料 : G.B. Wimsatt, Business Discontinuance, 1940~42. Survey of Current Business, November, 1943. (Steindl, ibid., p. 8. 參照)

넷째로는 그리고 보면, 「마샬」의 이른바 上向運動은 是認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反對로 大部分의 中小企業은 成長하기 以前에 死亡한다는 것이 보다 現實的인 假定인 것 같다. 이와같은 頻繁한 死亡은 適當한 새로운 加入者로써 메워질 것이다. 말하자면 中小企業者의 경우에는 그 供給은 극히 彈力的이라는 것이다.

그럼, 大企業者의 경우는 어떠한가 하면 그 供給은 非彈力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샬」이 假定한 것 처럼 大企業者는 中小企業者의 成長結果로서 이루어진다면 그 供給은 中小企業者의 多量의인 死亡으로 因하여 그 數는 緩慢히 增加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破産 등으로 그 增加가 相殺되는 面도 있다. 한편 大企業은 株式會社의 結成이나 合併에 의하여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株式會社의 結成은 少數의 富裕者가 그 利益을 위하여 結成하고 株式을 公開市場에 내놓게 되므로 集中의인 富를 前提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供給은 制限되는 것이다. 또 合併은 (買收나 合同의 경우도) 실은 그 合併하는 會社가 대개는 이미 상당한 大企業으로서 그 產業에 있어서 寡占의인 位置가 確立되어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말하자면 大企業의 形成에 中小企業은 關與하지 않게 된다. 故로 「마샬」의 見解와는 달리 大企業家의 供給은 非彈力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大企業者의 利益은 正常的으로 되어야 할 必要가 없고 또 그 供給이 彈力的인 (적어도 相對的으로) 中小企業者의 利益과 何等의 關係를 가질 必要가 없는 것이다. 大企業者에 대한 需要가 充分하지 않은限, (大規模生産이 거기에 따르는 大企業者보다 적

지 않은限) 그들은 競爭에 의하여 利益率을 低下시키지 않을 것이며, 永久히 正常以上の 利益率을 維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로 「마살」에 있어서 또하나의 問題點이 있다. 그는 企業者의 個人的能力의 衰退를 一種의 社會的法則으로 보고 이를 대단히 重要視한 結果, 大規模生産의 節約은 獨占的支配(monopolistic domination)를 招來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오늘날 經濟體系의 大部分은 이미 獨占的支配下에 놓여 있는 것이다. 獨占的支配라는 것은 市場의 生産物의 全部를 한손에 넣는 段階에 까지 갈 必要는 없다. 生産物의 實質的部分을 少數企業이 掌握하는 狀態로 集中시키면 同一한 結果에 到達한다. 소위 寡占(oligopoly)이 그것이다. 그것은 價格에 대한 效果에 있어서 獨占(monopoly)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寡占의 特徵은 需要의 交叉彈力性(cross-elasticities)이 有限이라는것, 즉 換言하면 一企業이 價格을 上昇시키면 他企業은 販賣高가 增加하는 關係에 있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大企業이 市場에서 生産物의 大部分을 가지고 있다면 殘餘企業에 대한 그 價格政策의 影響은 대단히 크다. 그 影響을 받는 것이 中小企業이라면, 有利한 경우, 不利한 경우를 막론하고 더욱 深化한다. 그런데 大企業에 있어서의 價格上昇은 그 企業이 自己의 販賣量을 減少시키는 것과 거의 같은 比例로 殘餘企業의 販賣高를 增加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많은 殘餘企業中의 一企業의 價格變化는 獨占的地位를 確立하고 있는 大企業의 販賣量에는 거의 影響을 미치지 못한다. 이와같은 條件下에서는 必然的으로 價格의 主導權(price-leadership)이 생겨서 大企業이 價格을 決定하고 다른 많은 中小企業이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 그리고 그와같은 作用을 하는 大企業은 반드시 하나의 企業이 아니고 少數의 大企業이 될 수도 있다. 어떤 産業의 市場生産物의 實質的部分을 占하는 寡占者는, 혹은 公開裡에, 혹은 暗暗裡에 어떠한 形式의 協定을 맺고 價格의 主導權을 確立하여 支配的地位를 維持할 것이다.

이렇듯 寡占은 根本的으로는 獨占과 差異가 없고 따라서 대개는 價格을 上昇시키는 것이다. 그에 대한 制限的條件은 그 産業에 새로운 參加者가 들어오는 危險, 또는 現存의 競爭者를 排除코자 하는 慾望의 어느 쪽이라고 하겠다. 勿論 市場支配의 程度는 大企業이 占有하는 生産物의 比率과 그 財力에 의하여 다를 것이다. 그러나 獨占的支配가 실제로 作用을 시작하는 點은 企業이 市場의 相當部分을 獲得할 狀態로 까지 企業規模가 커졌을 때이다. 다시 말하면 獨占的傾向이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大規模生産의 節約이 적어도 獨占的支配가 可能한 點까지 그 效果를 發揮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한편 여하간에 大企業은 獨占과 마찬가지로 寡占의 狀態에서 正常以上の 利益을 收得하게 된다. 그러므로 寡占的支配者는 반드시 그 以上으로 企業規模를 擴張할 必要가 없게 된다. 만일 그와같은 支配者가 餘分의 資本을 所持한다면 限界利潤率을 考慮하여 他産業에 投資할 것이다. 이

것이 窮極의인 獨占으로 까지 規模擴大가 되지 않는 理由이다. 要言하면 大規模生産의 節約이 企業規模를 擴張시키는 것은 寡占의狀態를 獲得하는 點까지라는 것이다.

위에서 論述한 바에 따라 「스타인들」은 「마샬」이 企業者의 供給은 彈力的이어서 利益率을 低下시킨다는 假定은 中小企業에 妥當할 뿐, 大企業에는 適用되지 않는다고 指摘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大企業者의 供給은 非彈力的이고 따라서 높은 利益率이 維持되며, 中小企業者의 供給은 彈力的이어서 그 利益率은 低下된다는 것이다.

이제 그와같은 企業者供給의 不完全을 考慮하면 大規模生産의 節約은 어떠한 企業規模에도 妥當하는 一般의인 것이 아니어서, 가령 規模에 의한 能率差가 存在하는 경우에는 大企業이 有利한 位置에 서게 된다. 그 理由は 大規模生産의 節約이 어떤 상당히 큰 規模工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와같은 工場設備에 要하는 資本投下를 할 수 있는 大企業만이 그 節約을 利用할 수 있고 資本이 不足한 中小企業으로는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한편 中小規模工場에 節約이 있다면<sup>(36)</sup> 大企業은 資本을 分割投資함으로써 그 節約을 充分히 利用할 수 있다. 結局 어느 경우이나 大企業이 中小企業보다 利益率이 높은 것이다. 사실 技術的 發展은 中小規模設備에 適合성을 준다고 하지만, 中小企業이 享有할 수 있는 모든 技術的 利益은 大企業도 享有할 수 있는데 反하여 어떤 種類의 技術的 利益은 大企業만이 利用할 수 있기 때문에 中小企業은 大企業보다 높은 利益率을 收得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結論적으로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에는 斷層이 形成되고 中小企業의 大企業으로의 成長은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 (3) 「스타인들」의 斷層說에 대한 反論

이제 「스타인들」의 그와같은 斷層說을 더욱 徹底히 살피기 위하여 그에 관한 몇가지 反論을 다음과에서 檢討하기로 한다.

첫째로 企業規模가 增大하는데 따라서 管理 및 組織面에서 不經濟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物理的인 意味에서는 大企業이 有利하지만 經營管理面에서는 複雜化를 免할 길이 없고 非能率과 浪費가 뒤 따른다는 것은 一般적으로 是認되고 있는 것 과 같다.<sup>(37)</sup> 또한 中小企業의 適應性이나 進取性에 比하면 大企業은 固定的, 官僚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基本的으로는 企業의 大規模化의 有利性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相殺되고 도리어 中小企業이 優越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企業을 收益企業과 損失企業으로 나누

(36) J.M. Blair (TNEC Monograph 22. p. 198.)가 든 木材産業은 그 好例이다. 즉, 可動的이며 可換的인 材木伐採設備의 導入은 中小規模生産을 有利하게 하였다. (Steindl, *ibid.*, p. 10, footnote 1.)

(37) 企業規模의 擴大限界가 人間의 管理能力의 限界에 의하여 規定된다는 것이 今日的 通說이라고 할 수 있다. Steindl, *ibid.*, p. 10~11. 또한 末松玄六著, 「中小企業と 經營合理化」, 第 42~44面을 參照.

어 그 規模別 特色을 보면 損失企業에서는 그 規模가 작을수록 損失이 많지만, 反面에 收益企業에 있어서는 規模가 작을수록 利益率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sup>(38)</sup> 이것은 經營管理面을 包含하여 中小企業은 中小企業대로의 有利한 面이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고 보겠다. 이리하여 經濟學者中에는 大企業의 不經濟라는 現象을 각별히 重視하는 사람도 있지만,<sup>(39)</sup> 그러나 이 根據를 갖고 大規模生産의 有利性을 全面的으로 否定할 수는 없을 것 같다.<sup>(40)</sup>

둘째로 大企業 특히 巨大企業은 스스로 中小企業보다 낮은 利益率으로써 滿足하는 代身에 企業의 安定性을 얻고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例컨대 借入資本의 比率을 減少시킴으로써 利益率이 낮아지겠지만 反面에는 보다 確固한 安定性을 維持할 수 있다. 大企業일수록 安定性이 지니는 뜻은 크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損失의 頻度와 程度를 減縮시키는 동시에 平均的으로 中小企業보다 成功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勿論 物理的 觀點에서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利益率의 格差가 懸隔하다면 그와 같은 安定性이 얼마나 重視될런지는 問題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例를 들어 보건대, 多數의 產業에 있어서 大規模生産의 節約이 있고 그것을 經營할 資本力이 있는 大企業者數가 制限되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의 大企業者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大企業者는 大規模節約에 의하여 正常以上の 큰 利益을 얻을 수 있는 產業에 投資할 것이다. 財力이 相異한 企業者의 各規模別 階層에 대하여 그보다 낮은 規模에 있어서 有利한 技術의 機會가 開放되어 있는데 反하여 自己보다 큰 資本을 要하는 機會는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같은 有利한 位置에 있는 大企業者는 資本을 分割하여 小規模로 節約利益을 甘受할 必要는 없는 것이다. 처음부터 大規模生産의 節約이 있는 產業에 參加하여 正常以上の 利益을 收得할 것이다. 그러므로 大企業의 安定性에 着眼한 이 두번째의 反論도 그렇게 決定的인 것 이라고는 할 수 없다.<sup>(41)</sup>

셋째는 生産物市場의 不完全에 관한 것이다. 우선 企業者는 새로운 市場을 뚫고 進出하자면 開設段階의 特別한 經費(소위 創業費)가 따르며 그 事業에 대한 充分한 知識을 갖지 못한다. 또한 多種類의 事業을 兼營한다면 더욱 危險을 增大하게 될 것이다.<sup>(42)</sup> 여기에서 市場의 不完全이 뜻하는 內容을 좀 더 자세히 檢討하면 販賣市場을 擴大하는 隘路로서 (a), 大企業의 價格切下 (b), 廣告費와 같은 單位當販賣費의 增加 (c), 不完全操業으로 인한 原價昂騰 (d), 一企業이 多種類의 製品을 生産하는 경우의 附加原價등이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나가서 그와같은 現象은 原料의 購入市場이나 勞動力市場의 不完全

(38) 例컨대, A.D.H. Kaplan, Small Business, Its Place and Problems, 1948, p. 94.

(39) 例컨대, Austin Robinson, The Structure of Competitive Industry를 들 수 있다.

(40) Steindl, *ibid.*, p. 11, footnote 1.

(41) *Ibid.*, p. 11-12.

(42) M. Kalecki, Studies in Economic Dynamics, p. 62. (Steindl, *ibid.*, p. 11, footnote 2.)



性에 의하여서도 招來된다<sup>(43)</sup>는 것을 잊을 수 없다. 이 점은 말하자면 「스타인들」 자신이 認定하고 있는 바이다.<sup>(44)</sup> 가령 勞動力市場의 不完全으로 말미암아 中小企業은 大企業보다 比較的 低廉한 勞動力을 雇傭할 수 있다.

그러나 産業이 全體적으로 發展하고 있을 때, 또는 獨占 내지 寡占의 狀態가 確立될 때는 市場의 不完全性으로 因한 制約을 減少시킨다고 할 것이다.<sup>(45)</sup> 그뿐더러 獨占 내지 寡占狀態에 있어서 오히려 中小企業의 存在를 許容하는 傾向도 없지 않다. 그 理由로서는 일단 大企業이 價格의 主導權을 잡으면 全供給量의 少部分을 차지하는데 不過한 中小企業을 排除하여 보아도 別로 實益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寡占의 大企業은 그 價格統制力에 의하여 大企業이 中小企業에 代身하여 새로히 參加하여 오는 것을 阻止하는 役割을 한다고도 말하고 있다.<sup>(46)</sup> 여하간에 市場의 不完全性으로 말미암은 大企業의 不利益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大企業에 대하여 中小企業이 優越할 수 없다고 보고자 하는 「스타인들」의 見解는 이점에 있어서 充分히 檢討되어야 할 餘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完全競爭과 不完全競爭에 관한 以上の 論述을 中小企業의 觀點에서 간단히 要約하고자 한다.

우선 中小企業의 理論에 있어서 「마샬」과 같이 完全競爭을 前提로 하는 것은 올바른 解明의 길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完全競爭理論이 理論體系의 基礎로서의 價値를 결코 喪失하는 것은 아니다. 확실히 그것은 不完全競爭理論의 產母에 틀림없다. 그러나 中小企業에 관한 現實을 充分히 解明할 수 있는 理論的 土臺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不完全競爭理論이야말로 우리가 重視하여야 할 理論이지만 여기에 관하여 諸學者, 가령 「로빈슨」女史와, 우리가 주로 考察한 「스타인들」에 있어서 그 展開가 반드시 一致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말하자면 「로빈슨」에 있어서는 市場의 價格을 所與의 것으로 보지 않으나 또한 동시에 大企業은 獨占力을 가진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結局 大企業도 中小企業도 併存하는 것이다. 그것은 中小企業이 不完全市場에 의하여 保護되기 때문이다. 女史의 産業均衡에 있어서의 資本利益率은 大企業도 中小企業도 均等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말 하듯이 이와 같은 構想은 完全競爭을 主張하면서도 不完全競爭을 是認한 結果가 된 「마샬」의 構想과 一脈相通하는 것 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結局, 兩者가 모두 資本移動의 自由를 認定한

(43) Steindl, *ibid.*, *op. cit.*, p. 18.

(44) *Ibid.*, p. 11.

(45) *Ibid.*, *op. cit.*, p. 18—19.

(46) *Ibid.*, *op. cit.*, p. 60.

데에 緣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타인들」에 있어서는 完全競爭에 加擔하지 않는 것은 勿論이고, 大企業과 中小企業은 斷層으로 끊긴 것으로 본다. 또한 現實의 經濟는 事實上 獨占 내지 寡占의 狀態에 있다는 것을 強調하면서 大規模生産의 節約은 顯著하지 않더라도 大企業者의 供給 彈力性이 적기 때문에 大企業이 中小企業보다 有利한 位置에 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要컨대 그는 資本移動의 自由를 認定하지 않는 것이다. 또 「마샬」의 理論이 直接 批判의 對象이 된 所以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리하여 「스타인들」의 理論은 近代經濟學의 立場에서 中小企業의 殘存을 解明하여 주는 가장 注目되는 理論이라고 할 것이다.

#### IV. 結 語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中小企業問題는 近代經濟學의 立場에서는 完全競爭이 아니라 不完全競爭의 理論을 背景으로 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先進國에 있어서는 대체로 產業均衡에 理論의 焦點을 둔 「로빈슨」의 경우 보다 오히려 寡占의 一般的 存在를 強調하는 「스타인들」의 見解가 보다 現實的인 妥當性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스타인들」도 引用하였지만 美國에 있어서 企業規模의 擴大에 따라 資本利益率이 增大한다는 實態<sup>(47)</sup>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韓國과 같은 後進國에 있어서도 企業의 規模增大가 資本利益率의 增加를 隨伴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問題點이라고 할 것이다. 勿論 우리나라의 企業規模別의 資本利益率을 具體的으로 檢討하지 않고 斷言할 수는 없으나, 筆者는 「스타인들」의 理論이 그대로 妥當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에 관한 資料도 약간은 있다.<sup>(48)</sup> 이점에 있어서는 도리어 「로빈슨」의 產業均衡의 狀態가 現實을 反映할는지 모른다. 여하간에 先進國의인 理論이 그대로 適合하지는 않을듯하다.

또한 원래 企業利潤은 資本利益率 뿐만 아니라 勞動生産性, 市場條件 등에 따라서 左右된다고 볼 수 있는데, 韓國에서는 大規模企業이 中小規模의 경우보다 반드시 勞動生産性이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市場條件에 있어서도 一般的으로는 大規模企業에 有利하다는 것을 肯定하겠으나 역시 檢討의 餘地가 있는 問題이다.

한결음 나아가 經濟政策의인 視角에서 볼때, 「스타인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大規模企業이 有利하고 그 結果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에 소위 斷層이 생긴다면, 그럴수록 國民經濟的인 立場에서 中小企業의 保護, 育成이 必要하다는 것을 認定하게 된다. 또 만약에 우

(47) Crum, Corporate Size and Earning Power 參照.

(48) 가령, 中小企業銀行刊, 「韓國의 中小企業」, (叢書·第2輯), 第60面, 參照.

리나라에서는 大規模企業의 有利性이 그대로 適用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意味에서 中小企業의 發展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우리나라에 있어서 中小企業의 存立과 保護, 發展의 重要性은 움직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教授〕  
〔 서울大學校商科大學 〕  
〔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

<Summary>

## **A Study on Survival Theory of Medium and Small Scale Industry**

*Byung-June Whang\**

One of the fundamental phenomena in the capitalist economy is the concentration and accumulation of capital, which tend to accelerate a growth toward larger scales of business enterprises.

While this is true, there is an equally strong tendency on the part of medium and small scale industry to remain in existence under capitalism. This thesis is primarily written to make a summary study of theories concerning such a tendency under a capitalist economy.

To present an over-all picture, the writer epitomized in the thesis two opposing theories: those concerning “extinction of medium and small scale industry” advocated by such scholars as J.A. Hobson, K. Marx, and G. Schmoller, and those on survival of medium and small scale industry chiefly maintained by E. Bernstein, K. Kautsky, and A.D.H. Kaplan, etc.

It goes without saying, however, that from the viewpoint of modern economics, both A. Marshall and J. Steindl, there are two great theorists on medium and small scale industry. Marshall built his theory on “representative firm” based on the theory of perfect competition. On the other hand, Steindl propounded a theory that there exists a certain “gap” between large scale industry and medium and small industry. He based his “gap” theory on the theory of imperfect competition.

Thus, Steindl challenged Marshall’s theory of “representative firm” with what could now be credited as more actual theory of “gap”—that granting oligopoly exists, the medium and small scale industry does also exist in its own right.

---

\* Professor of Industrial Economics,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Membe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writer attempted an elaboration on Steindl's theory in the thesis. And it seems that medium and small scale industry does survive because of imperfect capital movements.

Despite Steindl's theory, a vital question at issue is now whether his theory is also applicable to Korea which is still in a underdeveloped stage.

The writer should note that he found Steindl's theory not applicable in terms of reality in Korean economy. Pending further study,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here in Korea, not all the large scale industries are making more profit than the small scale ones, and that comparison between labor productivity and market conditions leaves much room for an over-all re-examination of Steindl's theory.

Theoretically, medium and small scale industries in Korea are much different in their nature from those in advanced countries as U.S.A. Here they are given vital gravity in the national economic structure, and the writer shares a prevailing view that emphasis must be placed on further protecting and developing the medium and small scale industry in the country.